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남자 휠체어농구 은메달을 획득한 제주선수단 (왼쪽).

제주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제주 남자휠체어농구 값진 은메달

결승서 강호 서울특별시 상대 46-72... 제주선수단 첫 메달 선물

10년 만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정상에 도전했던 제주 남자휠체어농구가 값진 은메달을 수확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수단은 2일 오후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남자 휠체어농구 오픈(육성종목) 결승전에서 서울특별시에 46-72로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다.

남자휠체어농구 은메달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제주선수

단 첫 메달이다.

제주는 1쿼터를 11-20으로 마친 뒤 2쿼터에서 19-15로 앞서기도 하면서 전반을 30-35, 5점차로 마쳤다. 하지만 3쿼터에서 점수차가 벌어지며 최종 46-72로 경기를 마쳤다.

제주는 지난 2024년 제44회 대회 결승에서도 서울에 56-59로 석패해 은메달에 그친 바 있어 홈경기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제주는 8강전에서 울산광역시를

89-36으로 대파했다. 4강전에서는 맞수 강원자치도를 상대로 69-64로 역전승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제주 남자 지적농구 1DD(보급종목) 선수단은 4일 오후 2시30분 첫 경기에 나서 추가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제주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26개 종목 총 475명이 출전해 메달 150개 이상 획득, 종합 12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위영석기자



제23회 제주시장기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에서 우승한 대구경찰청.

제주시체육회 제공

대구경찰청 제주시장기 공무원야구 2연패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와 결승 10-3 제압

대구경찰청이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제주시장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제주시가 주최하고 제주시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야구소프트볼협회, 제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공동 주관한 제23회 제주시장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에는 전국 11개 시·도에서 27개 팀, 550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가 참가해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나흘간 열띤 경쟁을 펼쳤다.

조별 예선과 본선 토너먼트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수준 높은 경기와 치열한 승부가 이어졌으며, 지난해 이어 다시 결승에 오른 대구경찰청은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이며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를 10-3으로 제압하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공동 3위는 원주시청과 지난해 준우승했던 경기남부경찰청에게 돌아갔다.

대구경찰청은 예선 1라운드에서 영덕군청을 7-0 기권승으로 꺾었고 2차전에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18-1로 크게 이겼다. 이어 제주시청과 맞붙은 16강에서도 13-6, 8강에서는 서울소방재난본부를 9-0, 4강에서는 경기남부경찰청을 9-4로 제압했다.

제주지역 출전팀 중 제주교도소는 서울소방재난본부에 3-18로 패하며 제주시청과 16강에서 탈락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美 도전 마무리’ 고우석, 친정팀 LG 복귀

잔여 시즌 1억5000만 계약
염경엽 “승리조로 활용”
포스트시즌은 등판 불가

프로야구 LG 구단은 2일 “고우석과 계약하고 선수 등록을 마쳤다”면서 “고우석은 시즌 도중 복귀함에 따라 잔여 시즌 3개월분인 1억 5000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우석은 구단을 통해 “한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신 팬들께 감사하다”며 “비록 시즌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남은 경기에 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던지겠다”고 밝혔다.



미국 도전을 마치고 돌아온 고우석이 2일 LG와 계약한 뒤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고우석은 2023시즌 LG의 통합 우승에 힘을 보탠 뒤 구단의 허락을 받아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미국 프로야구 진출 도전에 나섰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마이애미 말린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미네소

타 트윈스 등 많은 팀을 거쳤다.

그는 미국 생활 대부분을 마이너 리그에서 보냈으며 최근 미네소타에서 방출 대기 통보를 받은 뒤 타 구단의 영입 제의를 받지 못해 신분이 마이너리그로 이관되자 국내 복귀를 결심하고 1일 귀국했다.

고우석은 국내 선수의 경우 매년 7월 31일까지 선수 등록을 완료해야 포스트시즌(PS)에 뛸 수 있다는 KBO 규정에 따라 올해 가을야구에는 함께 할 수 없다.

염경엽 LG 감독은 지난 1일 “고우석은 2이닝 정도 길게 던지는 불펜 승리조로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이르면 3일 경기부터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결의를 다지는 제주SK FC 유스팀.

제주SK FC제공

‘K리그 아시안 유스 챔피언십’ 제주서 열전

어제 개막... 해외 4팀, K리그 산하 4팀 등 8개팀 참가

K리그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과 아시아 명문 구단 유소년 클럽이 만나 국제 교류와 우정을 이어가는 ‘K리그 아시안 유스 챔피언십 제주 2026(K LEAGUE ASIAN YOUTH CHAMPIONSHIP JEJU 2026)’이 2일 개막했다.

오는 6일까지 5일간 서귀포시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올해로 3회째이며 제주SK가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과 공동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총 8개 팀(국내 K리그 산하 유스 4팀+해외 4팀)이 참가한다. 참가팀은 4개 팀씩 A조와 B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순위결정전을 통해 최종 순위를 가린다. U-18 대회로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참여한다.

A조는 제주SK U-18팀을 비롯해 경남 U-18팀, AIE 국제고등학교(일본), PVF 풋볼 아카데미(베트남)가, B조에는 대구 U-18팀, 수원FC U-18팀, 세레소 오사카(일본), I리그 유스 선발팀(인도네시아)이 편성됐다. 위영석기자

남자 농구 AG 명단 확정

이현중·여준석·최준용 포함

아시안게임 무대에 출격하는 남자 농구 대표팀에 ‘에이스’ 이현중과 여준석(시애틀데)을 비롯해 최준용(KCC)까지 최종 승선했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2026 아시안게임 무대에 출전할 성인 남자 농구 국가대표팀 최종 12인 명단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표팀의 핵심 자원인 이현중을 비롯해 여준석, 이정현(소노) 등 기존 주축 선수들이 변함없이 이름을 올렸다.

해외 무대 도전으로 인해 앞선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안컵 예선 원도4 일정에 결장했던 최준용도 합류해 힘을 보탠다.

이우석(국군체육부대), 유기상(LG), 이승현(현대모비스), 변준형(정관장), 안영준(SK), 장재석(KCC) 등 주요 선수들을 비롯해 문유현(정관장), 에디 다니엘(SK) 등 젊은 유망주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한국은 이번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A조에 편성돼 10일 사우디아라비아전을 시작으로 11일 인도네시아, 13일 일본과 차례로 맞붙는다.

한국 남자농구는 지난 2014년 인천 대회 이후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탈환을 노린다. 연합뉴스

2026 인구포럼

제주형 인구정책 공감포럼
『제주 라이프(Life), 라이브(Live)!』

2026. 9. 4.(금) 14:00~18:00

비인(Be IN;) 공연장 및 민속자연사박물관

1부, 인구포럼 (14:00~15:10)

- 청년 정주정책 소개
- 발제: 『정답이 공짜가 된 시대의 인간의 가치』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 토론(토크콘서트): “제주에서 살아남기”

2부, 도전골든벨 (15:20~17:00)

- 제주 청년 뮤지션 문화공연: 리글로우[RE:GLOW]
- 인구정책 우수사례 공유
〈AI 캐릭터 '인구정책 친구들' 스토리텔링 영상〉
- 인구교육 & 골든벨
〈보건복지부 강사 인구교육 + 참여자 골든벨〉

※ 부대행사 (16:00~17:00, 민속자연사박물관)
학생 왕중왕전 골든벨: 도내 초등·중학생 대상

도민과함께 미래를 만든다 제주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CBS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